

“中 선박 피하자”… K-조선, 글로벌 ‘수주 블루칩’ 부상

美, 中 건조선박 최대 22억 수주료 엑슨모빌·마리나키스 발주 이동 HD현대, 2.3조대 컨선 수주 압박 한화오션, 유조선 2척 반사이익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박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글로벌 선주들의 선박 발주 방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조선업 봉쇄기조에 따라 중국산 선박을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대체 수혜처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그리스 해운사와 2조 3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단계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중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을 대신해 한국 조선소로 발주처를 바꾸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이 수주 확대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 분석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따른다.

그리스 선주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의 캐피탈 마리타임은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와 20척 규모의 수주 계약을 논의 중이다. HD현대삼호에는 88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1개)급 LNG이중연료 컨테이너 6척을, HD현대미포에 28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1800TEU급 6척을 발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31일 한화오션이 수주한 초대형 유조선(VLCC) 2척 또한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 발주였다. 미국과 거래가 많은 기업 입장에서 중국산 선박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중국 조선사를 배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중국 건조선박에 대해 최대 150만달러(약 22억원)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에는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 중국 건조 선박을 보유한 선사들의 모든 선박에는 50만~100만달러(약 7억~14억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미국의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 발표 이후 미국 기업이 중국 선박 발주를 취소하는 첫 사례도 나왔다. 미국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 예정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병커링선 신규 계약을 보류한 바 있다.

엑슨모빌은 지난 2월 중국 조선소를 통해 2만㎡급 LNG병커링선 2척을 건조할 슬롯을 확보하며 공식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엑슨모빌은 공식 입찰을 끝내 보류했다. 업계에서는 엑슨모빌이 발주를 보류한 선박이

한국 조선소에서도 충분히 건조할 수 있는 선종인 만큼 국내 조선사에 물량이 넘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한국이 중국보다 수주량에서 우위를 점하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150만CGT(58척)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82만CGT(17척, 55%), 중국은 52만CGT(31척, 35%)를 수주했다. 단순히 척수만 보면 중국이 많아 보이지만 선박의 크기와 부가가치를 반영한 CGT 기준으로는 한국이 앞서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의 그리스 해운사 수주 건은 아직 계약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발주 배경 역시 조선사 내부에서도 명확히 파악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화 이후 글로벌 선주들의 발주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업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살아있는 지능 시대’… 자율적 판단 등 진화하는 ‘LI’ 뜬다

(리빙 인텔리전스)

도구 아닌 문명 주체로 발전
감지·학습·적응·진화 수행
맞춤형 AI, 행동까지 예측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기술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던 기술의 진화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적응하며 진화하는 지능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미국 경영 컨설팅업체 ‘퓨처 투데이 전략 그룹(FTSG)’은 최근 발간한 ‘2025 테크 트렌드 리포트’에서 차세대 기술 패러다임으로 ‘리빙 인텔리전스(LI·Living Intelligence)’를 제

시하며,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문명을 바꾸는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LI는 스스로 감지하고 학습하며,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자율 지능 시스템을 의미한다. AI(인공지능)뿐 아니라 생명공학, 신경과학, 나노기술 등 다양한 첨단 테크놀로지가 융합돼 사람처럼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며, 스스로 진화해 나간다는 게 특징이다.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기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람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반응하며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상황에 맞춰 진화하는 지능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

보고서는 이를 “우리가 기술을 통제

하는 시대에서, 기술이 우리와 함께 판단하는 시대로의 이동”이라고 해석하며, LI 기술이 앞으로 도시 인프라, 헬스케어,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제조업에서는 AI와 센서를 활용해 생산 공정을 스스로 감지하고 판단해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자율 조정형 생산 시스템’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헬스케어에서는 AI 기반 실시간 바이오 모니터링, 유통업에서는 고객 반응에 즉각 반응하는 스마트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LI를 구현할 핵심 기술로 ‘거대 행동 모델(LAM·Large Action Model)’과 ‘개인화된 행동 모델(PLA

M·Personal Large Action Model)’를 꼽았다.

LAM은 언어 처리 중심의 기존 AI 모델을 넘어 마우스 클릭, 텍스트 입력, 화면 탐색 등 실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LAM 개발을 위해 총 7만6000개의 작업-계획(task-plan) 데이터를 수집해 학습시켰고, 이 중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된 2000개의 행동 시퀀스만을 추려내 모델 훈련에 최종 활용함으로써 실행 성능을 극대화했다.

PLAM은 이러한 행동 모델을 사용자의 생체 정보, 일정, 위치, 온라인 기록 등 개인화된 데이터에 기반해 맞춤형 행태다. 예컨대 사용자의 스트레

스 수준을 인지하고 회의를 재조정하거나, 식습관과 생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단을 추천하고 주문까지 할 수 있다.

이는 AI가 인간의 결정 패턴을 완전히 내재화해 진화된 형태로, LI는 사용자의 삶에 깊이 통합된 ‘디지털 분신’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사용자의 결정 패턴을 학습해 결국 ‘당신이 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고 실행하는 AI가 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5년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인류 문명의 장기적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며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닌 그 기술을 어떻게 선택하고 쓰느냐가 진짜 미래를 만든다고 조언한다.

/김현정 기자 hjk1@

되살아난 원전 생태계… 尹 파면에 다시 ‘불확실성’

SMR·체코 원전 등 수출 변수 부각
업계 “정책 연속성 확보 절실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정부에서 추진해 온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활기를 되찾고 있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르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발생했다. 제11차 전기본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의 회복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됐으나 향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수정될 여지가 생길 셈이다. 당시 계획 확정안에는 신규 대형원전

(2기) 및 SMR(1기)을 건설하는 안이 포함됐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을 오는 2038년 70.7%까지 확대하도록 설계했으며 구체적으로 2038년 원전 발전 비중은 35%, 재생에너지는 29%이다.

산업계 역시 원전 사업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HD현대와 두산에너지는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 기업 테라파워와 손잡고 SMR 사업 확대에 대거 나서고 있다. 설비 개발 및 제작에 뛰어들면서 한·미원전 동맹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분위기다. HD현대는 테라파워로부터 원통형 원자로 용기 제작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두산에너지는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도 국내 원전 산업의 수출 활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두산에너지도 주기기 제작을 위한 본격 계약 체결 이후 본격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다만 당초 협상이 지난 3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는 4월 중순과 5월 중으로 끝맺음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변수로 작용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다만 두산에너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는 별개로 주기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등 주요국의 원전 시장에서 수익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원자력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산업통상자원부

제외하고도 가스터빈, 풍력 사업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정권 성향에 따라 에너지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진보 정당 집권 시대 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 관련 기업에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

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형성됐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정국 변화가 당장 사업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